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 감성지능, 학업탄력성과의 관계 :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

정미현[†]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2020년 9월 11일 접수: 2020년 10월 30일 수정: 2020년 10월 30일 채택)

The Relationship among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Mi-Hyun Jeong[†]

Associate Professor, Kunsan College of Nursing

(Received September 11, 2020; Revised October 30, 2020; Accepted October 30, 2020)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학습참여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J지역 3개교 간호대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는 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 감성지능, 학업탄력성 그리고 자기조절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감성지능의 부분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는 것과 학업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학습참여, 감성지능과 자기조절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제어 : 학습참여, 감성지능, 학업탄력성, 자기조절, 간호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learning engagement and academic resilience, find whether self-regulation would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engage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7 nursing students from three colleges in J province and were analyzed with a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fit of

[†]Corresponding author
(E-mail: jmh@kcn.ac.kr)

the causal model between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resilience and self-regulation of nursing students was found to be good,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as predicted appropriately. Second, partially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path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ngagement affecting academic resilience. Third, self-regulation had moderating effect on learning engagement affecting emotional intelligence.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the influence of various variables that can affect the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verified, and in order to improve academic resilience, a strategy that considers the subjects'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ion.

Keywords : Learning Engagement,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Resilience, Self Regulation, Nursing Student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환경은 인구구조의 변화, 대상자들의 양질의 서비스 요구, 건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발전하는 의료신기술 등으로 인해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어, 이를 교육과정 중에 학습해야 할 간호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한 높은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다[1]. 간호대학생들에게는 인간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 엄격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전공과목에 대한 과중한 학습량, 간호술기 습득, 병원 및 지역사회 기관 등 낯선 환경에서의 실습에 대한 부담감 등이 학습스트레스의 주요인으로 제시된다[1].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학습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예방하고 조절하지 못한다면 학업에 대한 냉소적 태도, 무능감, 학업과정 중도포기 등의 학습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1], 학생들의 학습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은 학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복합적인 자질과 능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요인을 의미한다[2]. 학업적 위기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의 힘으로 작용하기에 학업 관련 특성으로 학업탄력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 학업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흥미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 학업적 그릿(Academic grit) 뿐만 아니라, 학업상황에서 실패 결과에 대해 유연하고 건설적인 태

도인 실패 내성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3]. 학업탄력성은 학년, 대인관계, 학업성적, 가족, 친구 등의 지지체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4],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현실적인 상황에서 낙천적인 성향[5], 주관적 행복감 등도 학업탄력성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4]. 따라서 학업탄력성은 전공만족을 통한 학업성취를 고취시키고[5], 대학생활과 졸업 후 직업영역에서의 성취에도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기에, 학업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업 관련 특성, 사회, 심리적인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재 양성의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고 있는 대학은 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어떠한 학습경험을 공유하고 배웠는지가 중요해졌다[6]. 즉, 학생이 경험하는 학습과정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측정하려는 시도로서 학습참여의 개념이 등장하였고, 대학교육 학습성과의 주요한 지표로 논의되고 있다[7]. 학습참여(Learning engagement)란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결과를 위해 학생이 교육적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에 투입하는 시간과 심리적 노력, 몰입의 정도, 교수 및 교우관계, 학습동기 등이 반영된 학습행동의 결과이며, 학습자의 인지, 정서, 행동적 참여를 하위구성요소로 포괄하는 개념이다[8]. 인지적 참여는 학습에 대한 심리적 몰입, 학업적 도전 의지, 지적 도전을 즐기는 태도이며, 정서적 참여는 학생들이 학교와 수업에서 느끼는 소속감 등의 감정 상태이고, 행동적 참여는 학교의 규율 준수와 질문, 토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8]. 다시 말해 학습참여는 학습자를 학업에 능동적으로 몰입하고 열중하게 만드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탄력성이라 볼 수 있으며[8], 성공적인 학업성취와 높은 만족감으로 연결되기에 효율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다[9]. 선행연구는 학업 영역에서 학습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학습자 개인의 특성 및 맥락적 요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학습참여는 학생의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 기대수준, 부모의 교육적 지원 그리고 교사의 지원 등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따라 학습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0]. 대학생인 경우 전공특성, 학업성취 수준, 교수자의 자율성지지, 심리적 자본, 수업환경 등에 따라 학습참여의 차이가 있으며, 학습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학습참여 동기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11]. 동기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의 시간과 빈도를 높이고, 참여동기와 학습만족도와 관계에서는 매개역할로 작용하였다[9][11]. 간호대학생은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을수록 학습참여도와 학업적응도가 높았으며, 학업적응을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보다도 학습참여가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보고하였다[12]. 교수실재감과 학습성과와의 관계에서는 학습참여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여러 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학습만족도를 높이는 데, 학습참여의 긍정적인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13]. 그러나 독립변인으로서 학습참여가 학습만족도와 학업성취도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매개역할 등이 일부 연구에서 확인되었으나, 학업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정서적, 인지적 및 행동적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즉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학업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대상자의 학습참여와의 인과적 관계 및 직접적 효과를 규명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반연구가 필요하다.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1990년대부터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14], 최근에는 간호의 직업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가 강조됨에 따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감성지능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사회적 지능에 개념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14]. 본 연구대상인 간호대학생의 경우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과 셀프리더십[15],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수행능력[16], 소명의식과 행복감[17],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만족도[18]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 회복탄력성,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향상되었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지능이 이들 변인들 간 매개역할에 관해 규명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감성지능의 하위구성 요소 중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속성이 조절능력이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감성지능의 감정조절력은 회복탄력성의 감정통제력과 충동통제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20],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감성지능은 조절능력을 통해서 타인과 자신의 감정, 그리고 식별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이 안락하고 문명화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용한 자질은 집단생활의 요구에 부응하고, 반사회적 충동을 억제하며, 스스로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21]. 이는 자기조절(Self regulation)을 의미하며, 개인의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행위이고, 목표지향적이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21]. 자기조절은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지만, 결핍시에는 사회적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여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설들이 지지되고 있다[21].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대학생의 경우 약물중독, 문제성 음주, 흡연, 폭식행동, 스마트폰 의존성 등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심리, 정신적으로는 우울, 불안장애, 대인관계 장애 및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을 경험한다[22]. 또한 자기조절의 조절 수준에 따라 대학생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부적응적 행동 및 심리적 문제 등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자살이나 자해행동 같은 부정적인 변인과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1][22][23]. 반면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과의 소통과 협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성취도, 학과적응 등의 대학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24].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한다면 자기조절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차원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억제할 수 있기에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 감성지능, 학업탄력성 및 자기조절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학습활동의 참여 수준과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감성을 조절하는 감성지능이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역할을 파악해보고, 이 관계에서 자기조절이 어떠한 역할을 갖는지에 대해 검증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과 직업영역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학업탄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학습참여와 감성지능 및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 학업탄력성, 감성지능 및 자기조절의 인과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이 변인 간 인과관계를 적합하게 예측하는지를 검증한다.

둘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1.3. 연구가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능, 자기조절 및 학업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연구가설 2.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은 학업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5.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능을 매개로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은 학습참여와 감성지능의 관계에서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7.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의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점차 증가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참여와의 관계와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및 자기조절의 조절효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ure 1].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J도에 소재한 4년제 간호학과 3곳의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 편의모집하여 280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학교별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 연구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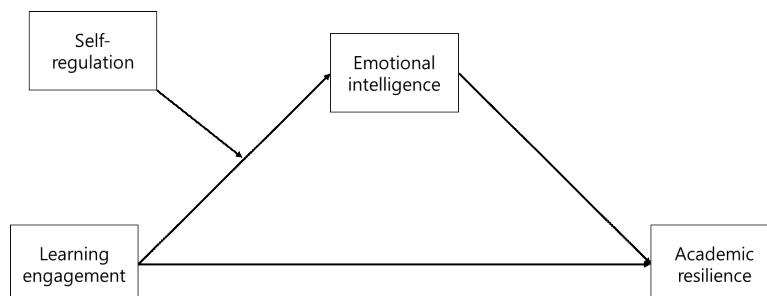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수집하였다. 설문작성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연구참여시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도중 또는 완성 후 연구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의사를 즉각 반영하고, 최대한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지는 구조화된 자기기입식으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15분이었고, 작성 즉시 회수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자료화하기에는 부적절한 3부를 제외한 277명(98.9%)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에 대한 근거는 회귀분석을 위해 G 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값 .05로 예측변수 9개를 기준으로 산출된 적정 표본수는 166명이었기에,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내용은 학습참여 20문항, 감성지능 16문항, 학업탄력성 29문항, 자기조절 14문항, 일반적 특성 5문항으로 총 84문항으로 구성되었다[Table 1].

2.3.1. 학습참여(Learning engagement)

학습참여는 Handelsman 등[25]이 개발하고 You[26]가 번안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습참여 척도는 총 20문항, 3개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참여(9문항), 정서적 참여(5문항), 행동적 참여(6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참여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u[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8이었다.

2.3.2.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Wong과 Law[27]가 개발한 WLEIS(Wong's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Hwang[2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감성지능 척도는 총 16문항, 4개 하위영역으로 자기감

성이해(4문항), 타인감성이해(4문항), 감성조절(4문항), 감성활용(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Hwang[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4이었다.

2.3.3. 학업탄력성(Academic resilience)

학업탄력성은 Kim[2]이 개발한 학업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업탄력성 척도는 총 29문항, 6개 하위영역으로 학습조절(5문항), 친구지지(5문항), 자기통제(6문항), 긍정적 태도(5문항), 과제책임감(4문항), 부모지지(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7이었다.

2.3.4. 자기조절(Self regulation)

자기조절 척도는 총 14문항, 2개 하위영역으로 자기조절(8문항), 협력적 자기조절(6문항)로 구성된다.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은 Bong 등[29]이 개발하였고, 협력적 자기조절은 DiDonato[30]이 개발한 척도로서 An[31]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An[31]의 연구에서의 자기조절 Cronbach's α 는 .824, 협력적 자기조절 Cronbach's α 는 .839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8이었고, 자기조절 Cronbach's α 는 .914, 협력적 자기조절 Cronbach's α 는 .91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학습참여, 감성지능, 자기조절 및 학업탄력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습참여, 감성지능, 자기조절 및 학업탄력성에 간

Table 1. Reliability of scales

(N=277)

Variable		N	Cronbach's Alpha	
Learning engagement	Cognitive engagement	9	.839	.908
	Emotional engagement	5	.858	
	Behavioral engagement	6	.804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4	.872	.874
	Other's emotional appraisal	4	.827	
	Regulation of emotion	4	.837	
	Use of emotion	4	.842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regulation	5	.840	.917
	Peer supporting	5	.889	
	Self control	6	.790	
	Positive attitude	5	.842	
	Task responsibility	4	.835	
Self regulation	Parents supporting	4	.823	.918
	Self regulation	8	.914	
	Co regulation	6	.910	

Table 2. Fit of measurement model

χ^2	df	GFI	CFI	RMR
444.374	84	.817	.829	.040

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습참여 및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감성지능과의 영향관계, 감성지능의 매개효과 및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Process 모형을 활용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Hayes[32]는 매개효과 증명이 가능한 SPSS/SAS/M-Plus macro를 개발 및 보급하였다. Process macro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적용하고 기본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하였다.

2.5.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의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분석 자료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χ^2 , GFI, CFI, RMR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2]와 같이 χ^2 은 444.374($df=84$, $p<.001$), GFI=.817, CFI=.829, RMR=.040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를 검증한 바 AVE값은 .5이상, 개념신뢰도 값은 .7이상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입증되었다[Table 3].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 절차 및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연구참여에 대한 결정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설문작성 도중이라도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과 부호화하여 연구자 외에는 식별할 수 없도록 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즉시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sult

Path	Estimate	S.E.	S.Estimate	AVE	C.R.
Emotional engagement ← Learning engagement	1		0.7		
Cognitive engagement ← Learning engagement	0.993	0.076	0.854	0.715	0.882
Behavioral engagement ← Learning engagement	0.992	0.092	0.695		
Use of emotion ← Emotional intelligence	1		0.386		
Regulation of emotion ← Emotional intelligence	1.951	0.319	0.784	0.507	0.795
Other's emotional appraisal ← Emotional intelligence	1.136	0.208	0.549		
Self emotional appraisal ← Emotional intelligence	1.207	0.224	0.534		
Co regulation ← Self regulation	1		0.651	0.649	0.786
Self regulation ← Self regulation	1.21	0.107	0.729		
Parents supporting ← Academic resilience	1		0.427		
Task responsibility ← Academic resilience	1.478	0.208	0.793		
Positive attitude ← Academic resilience	1.653	0.233	0.782	0.561	0.878
Self control ← Academic resilience	1.112	0.16	0.734		
Peer supporting ← Academic resilience	0.839	0.169	0.381		
Learning regulation ← Academic resilience	1.33	0.197	0.686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4].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99 ± 7.68 세로 25세 이하가 221명(79.7%)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 101명(36.5%), 2학년 102명(36.8%), 3학년 34명(12.3%), 4학년 40명(14.4%)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수업참여도 평균은 3.96 ± 0.86 점으로 매우 적극적 81명(29.2%), 적극적 117명(42.2%)으로 적극적인 성향이 전체 7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3.85 ± 0.83 점으로 매우 만족 62명(22.4%), 만족 125명(45.1%)으로 만족 성향이 전체 6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 108명(39.0%), 국내취업의 용이성 75명(27.1%), 부모님과 주변의 권유 44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학습참여의

평균은 3.45 ± 0.58 점으로 하위요인 중 인지적 참여가 3.59 ± 0.61 점으로 가장 높았다. 감성지능의 평균은 3.84 ± 0.50 점으로 하위요인 중 자기감정 이해가 4.11 ± 0.68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의 평균은 3.68 ± 0.73 점으로 협력적 자기조절이 4.00 ± 0.68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업탄력성의 평균은 3.85 ± 0.51 점으로 자기통제가 4.09 ± 0.56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변인의 왜도는 $-0.183 \sim 0.068$, 첨도는 $-0.329 \sim 1.696$ 으로 나타나 대부분 변인들은 정규성 검증 기준인 ± 1.96 (유의수준 5%)을 초과하지 않아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학습참여는 감성지능($r=.532, p<.001$), 자기조절($r=.767, p<.001$), 학업탄력성($r=.70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자기조절($r=.503, p<.001$), 학업탄력성($r=.717,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고, 자기조절은 학업탄력성($r=.72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N=277)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M±SD
Age(yr)	≤ 25	221(79.7)	22.99±7.68
	≥ 26 ≤ 29	23(8.3)	
	≥ 30 ≤ 39	14(5.1)	
	≥ 40 ≤ 49	14(5.1)	
	≥ 50	5(1.8)	
Grade	1 st grade	101(36.5)	
	2 nd grade	102(36.8)	
	3 rd grade	34(12.3)	
	4 th grade	40(14.4)	
Participation for class	Very active	81(29.2)	3.96±.86
	Active	117(42.2)	
	So-so	68(24.6)	
	Passive	9(3.3)	
	Very passive	2(.7)	
Satisfaction for major	Very satisfied	62(22.4)	3.85±.83
	Satisfied	125(45.1)	
	So-so	79(28.5)	
	Dissatisfied	9(3.3)	
	Very Dissatisfied	2(.7)	
Motivation for admission	Aptitude or interest	108(39.0)	
	High employment in Korea	75(27.1)	
	Recommendation of family	44(15.9)	
	Others	22(7.9)	
	Working abroad	18(6.5)	
	High school record	10(3.6)	

Table 5. Verification of correlation between each variables

No	M±SD	Skewness		Kurtosis																						
		Statistics	S.E	Statistics	S.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3.59±0.61	-0.276	0.146	1.177	0.292	1																				
2	3.57±0.75	-0.375	0.146	0.373	0.292	.578***	1																			
3	3.12±0.75	0.068	0.146	-0.056	0.292	.565***	.596***	1																		
4	3.45±0.58	-0.274	0.146	0.666	0.292	.874***	.823***	.842***	1																	
5	4.11±0.68	-0.813	0.146	1.696	0.292	.339***	.186***	.229***	.307***	1																
6	4.07±0.62	-0.391	0.146	-0.295	0.292	.364***	.302***	.275***	.374***	.502***	1															
7	3.50±0.74	-0.098	0.146	-0.006	0.292	.596***	.514***	.498***	.638***	.373***	.395***	1														
8	3.60±0.77	-0.144	0.146	-0.266	0.292	.219***	.099***	.157***	.195***	.322***	.242***	.252***	1													
9	3.84±0.5	-0.146	0.146	-0.104	0.292	.536***	.386***	.403***	.532***	.761***	.714***	.705***	.667***	1												
10	3.43±0.73	-0.098	0.146	0.245	0.292	.709***	.509***	.511***	.694***	.245***	.229***	.563***	.150***	.423***	1											
11	4.00±0.68	-0.425	0.146	0.143	0.292	.565***	.471***	.517***	.616***	.322***	.356***	.424***	.191***	.451***	.475***	1										
12	3.68±0.61	-0.156	0.146	0.036	0.292	.752***	.571***	.594***	.767***	.320***	.325***	.586***	.193***	.503***	.909***	.799***	1									
13	3.53±0.72	-0.083	0.146	0.078	0.292	.602***	.563***	.482***	.650***	.184***	.256***	.478***	.157***	.377***	.769***	.498***	.762***	1								
14	3.91±0.82	-0.532	0.146	-0.329	0.292	.215***	.108***	.251***	.233***	.401***	.308***	.245***	.285***	.429***	.132***	.357***	.260***	.127***	1							
15	4.09±0.56	-0.355	0.146	-0.111	0.292	.549***	.480***	.431***	.579***	.444***	.454***	.485***	.314***	.600***	.491***	.566***	.604***	.517***	.395***	1						
16	3.72±0.78	-0.358	0.146	0.007	0.292	.546***	.515***	.503***	.616***	.425***	.366***	.720***	.350***	.659***	.533***	.413***	.561***	.451***	.348***	.581***	1					
17	3.99±0.69	-0.427	0.146	0.078	0.292	.683***	.496***	.445***	.652***	.367***	.394***	.606***	.255***	.565***	.561***	.591***	.664***	.494***	.271***	.607***	.662***	1				
18	3.86±0.87	-0.771	0.146	0.533	0.292	.362***	.188***	.220***	.316***	.227***	.317***	.370***	.234***	.402***	.229***	.259***	.279***	.187***	.280***	.287***	.424***	.332***	1			
19	3.85±0.51	-0.231	0.146	-0.081	0.292	.684***	.546***	.550***	.709***	.489***	.493***	.681***	.382***	.717***	.632***	.626***	.729***	.648***	.603***	.793***	.822***	.769***	.594***	1		

* $p < .05$, ** $p < .01$, *** $p < .001$

1. Cognitive engagement, 2. Emotional engagement, 3. Behavioral engagement, 4. Learning engagement, 5. Self emotional appraisal, 6. Other's emotional appraisal, 7. Regulation of emotion, 8. Use of emotion, 9. Emotional intelligence, 10. Self regulation, 11. Co regulation, 12. Self regulation, 13. Learning regulation, 14. Peer supporting, 15. Self control, 16. Positive attitude, 17. Task responsibility, 18. Parents supporting, 19. Academic resilience

3.3.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조절된 매개효과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조절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33].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32]가 제시한 Process macro(Model 7)를 이용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매개변인인 감성지능을 통해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참여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309, p<.001, b=.486, p<.001$). 감성지능에 대한 학습참여와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103, p<.05$). 이는 감성지능에 대한 학습참여 효과가 조절변수인 자기조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성지능의 부분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한 결과 간접효과의 크기는

[Table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간접효과의 크기는 .221, 신뢰구간은 .167에서 .284로 나타나 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사용한 조건적 간접효과 결과 자기조절의 모든 수준에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크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의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간접효과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4 → .309 → .372). 따라서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Table 6. Result of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resilience		
	<i>b</i>	SE	<i>t</i>	<i>b</i>	SE	<i>t</i>
constant	3.808	.029	132.700***	1.987	.164	12.151***
Learning engagement	.309	.067	4.620***	.402	.036	11.065***
Emotional intelligence				.486	.042	11.478***
Self regulation	.195	.064	3.061**			
Learning engagement×Self regulation	.103	.051	2.017*			
F			41.837***			271.247***
R ²			.315			.664

* $p<.05$, ** $p<.01$, *** $p<.001$

Table 7. Indirect effect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variable	<i>b</i>	SE	Confidence Interval: 95%	
			LLCI	ULCI
Emotional intelligence	.221	.030	.167	.284

Table 8. Significance test on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 regulation

Mediating variable	Self regulation	<i>b</i>	SE	<i>t</i>	Confidence Interval: 95%	
					LLCI	ULCI
Emotional intelligence	-1SD(-.614)	.254	.073	3.378**	.102	.389
	Mean(.000)	.309	.067	4.620***	.177	.441
	+1SD(.614)	.372	.075	4.957***	.225	.520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자기조절의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집된 간호대학생 277명의 자료를 통해 진단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검증을 한 후 최종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학업탄력성을 측정한 결과, 문항 평균 3.85점(5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Lee[34]의 평균 3.87점와는 유사하고, Kang[35]의 평균 3.69점보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학업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자기통제 평균 점수가 4.09점으로 가장 높고, 학습조절은 3.5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34][35].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업상황에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학습시간과 학습량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강을 비롯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Quan과 Kim[36]이 간호대학생들에게 바이오피드백 훈련을 적용한 후 측정된 학업탄력성 점수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PBL수업 참여자와 강의식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 PBL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업탄력성 점수가 향상되어 교수학습 설계에 의한 효과가 입증되기도 하여[37] 학업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학습참여 평균은 3.45점(5점)으로, Lee와 Han[12]의 간호대학생의 평균 3.47점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 인지적 참여의 평균이 3.59점으로 가장 높고, 행동적 영역은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 질문 등의 상호작용의 형태보다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통한 학습활동에 더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참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표현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학생들 간 상호의견 조율과 통합과정 그리고 지식의 공유를 위해 소집단으로 구성된 협력학습을 제안할 수 있다. Kim과 Kim[11]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학습참여는 학생이 수업에서

교수자의 자율성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심리가 향상되어 어려운 과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인지적 학습전략을 활용한 경우에도 효과가 강화되어, 교수와 학생 간의 쌍방향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피드백, 학생의 학습 자기주도권 강화, 심리적 지지 등의 전략이 학습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중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들의 감성지능 평균은 3.84점(5점)으로 하위영역 중 자기감정이해 평균점수가 4.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측정한 Kim과 Yoo[16]의 평균 3.76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자기감정이해와 타인감정이해가 높고, 감정활용과 감정조절 점수가 낮게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은 대상자 돌봄 중심의 간호교육과정을 통해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수용력이 높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나, 심리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감성지능과의 인과적 또는 영향요인으로서 탐색이 주로 수행되었고, 이를 증진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례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기초자료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간호대학생들의 자기조절 평균은 3.68점(5점)으로 하위영역에서는 협력적 자기조절의 평균은 4.00점, 자기조절은 3.43점으로 An[31]의 연구에서 협력적 자기조절 3.86점, 자기조절 3.45점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협력적 자기조절은 사회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자질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기조절 역량과 학습성과 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31], 바람직한 결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와 관련하여 PBL로 설계된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협력적 자기조절과 집단응집력이 유의미하게 높아졌고, 학생들은 학습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팀원간 상호 협력적 활동으로 인해 협력적 자기조절이 더 많이 요구되었기에[38], 간호대학생들도 팀별 과제, 발표 등 팀단위의 학습활동과 임상실습과정에서 팀으로 진행되는 스케줄과 집담회 등으로 협력적 자기조절 향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변인들 간 상관관계 및 직·간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는 감성지능, 자기조절과 학업탄력성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성지능의 경우에는 자기조절과 학업탄력성에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고, 자기조절은 학업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습참여가 높을수록 감성지능, 자기조절과 학업탄력성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적극적일수록, 자신과 동료학생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도 높은 편이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리하여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취할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변인 간의 포괄적인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찾을 수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Shahnazi 등[39]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과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유의하지 않아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Lee와 Rho[40]가 제시한 대학생의 자기조절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는 자신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알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맥락적으로 지지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성지능은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학습참여와 학업탄력성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ewolde[41]가 1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참여,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은 학습참여에 영향을 주고, 학습참여와 회복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감성지능과 회복탄력성은 학습참여 정도의 예측인자로서, 이들 변인 간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연구를 유사한 맥락에서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이 학업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스트레스에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주도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며, 수업시 질문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자기조절 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과정에서 메타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스스로 통제하는 인지와 초인지적 전략화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자기주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42]. 결국 이러한 성향은 학습 관련 활동에서 자발적 참여를 조절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여 감정적 조절을 통해 자기 동기화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로는 대상자의 감정표현, 감성이해, 감성용통이 높을수록 자기주도적학습 성향이 높았다는 보고한 Kim과 Yang[43]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감성지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즉, 자기조절 수준이 높아질수록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성지능의 매개효과는 점차 증가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Sun과 Rueda[44]에 의하면, 원격수업환경에서 학습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기조절 수준을 제시하였으며, 온라인 토론, 온라인 게시판 참여 등의 활동은 전적으로 학생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뤄지는 자기조절력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성공적인 학업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자기조절의 역할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은 학업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으며, 감성지능의 요인이 학업적 맥락에서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부적응과 인지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45].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의 학업탄력성 강화와 관련되어 널리 알려진 개인의 내·외적 요인 외에도 또 다른 변인으로 학습참여와 감성지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우관계, 교수와의 관계,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학습활동이 증진되었을 때, 학업상황에서 발생되어지는 스트레스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학업적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타인에 대해 공감할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표현하고

활용한다면 학업탄력성 신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자들의 학습참여와 감성지능 그리고 학업탄력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조절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은 통해 변인들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관계를 확인하였고,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성지능의 조건부 간접효과와 각 변인들 간 인과관계의 분석 및 자기조절이 조절된 매개변인으로서 학습참여와 감성지능을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려운 학업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을 갖고 학습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주변인의 감정의 변화에도 이해력을 바탕으로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처신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수자들의 지속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전략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의료계는 신종바이러스의 출현과 각종 질환으로 인해 간호의 영역과 역할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자질과 역량을 갖춘 간호사의 양적 수요량은 증가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 증원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간호학과 입학자는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입학자의 상당수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소신에 의한 자율적 선택이기보다는 주변인의 권유나 높은 취업률에 대한 기대로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있다[1]. 그렇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간호학에 대한 관심과 확고한 목표의식 없이 방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과적응이 어려워 휴학이나 자퇴, 또는 전과 등의 학업 중도포기가 발생하고 있다[1]. 간호교육은 학생들이 간호대상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문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학업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J지역 3개 간호학과 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감성지능의 매개효과와 이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각 변인들의 평균점수는 학업탄력성 3.85점(5점), 학습참여 3.45점(5점), 감성지능 3.84점(5점), 자기조절 3.68점(5점)이었다.

둘째, 학습참여는 감성지능($r=.532, p<.001$), 자기조절($r=.767, p<.001$), 학업탄력성($r=.70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었고, 감성지능은 자기조절($r=.503, p<.001$), 학업탄력성($r=.717, p<.001$)과 자기조절은 학업탄력성($r=.729,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성지능은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학습참여가 감성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습참여가 학업탄력성에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감성지능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참여, 감성지능과 학업탄력성 간의 경로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으며, 감성지능을 매개로 하여 학업탄력성에 영향을 주었고, 자기조절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기에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참여, 감성지능과 자기조절력을 아울러서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해 제시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3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임의표집 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대상자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각각 변인들의 하위영역을 포함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학업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감성을 자극하고 촉진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H. J. Jung, M. J. Cha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Academic Stress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8, pp. 403-417, (2018).
2. N. R.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Scale of Academic Resil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3. H. R. Cho, *The Effects of Academic Grit and Academic Resilience for Academic Failure Tolerance in Dance Maj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9).
4. K. W. Seo, M. J. Kwon, "Factors Affecting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6, pp. 229-240, (2016).
5. H. J. Kim, Y. M. Lee,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1, pp. 692-700, (2020).
6. S. H. Bae, H. J. Kim, "Validation of the 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 (NSSE) Model in the Korean context",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0, No.1, pp. 499-523, (2012).
7. J. W. You, B. K. Kim, M. H. Kang,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Engage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4, No.3, pp. 45-70, (2014).
8. J. A. Fredricks, P. C. Blumenfeld, & A. H. Paris,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74, No.1, pp. 59-109, (2004).
9. H. S. Ha, M. J.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Middle-Aged Female Learners Academic Engag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ve Motivation and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5, No.2, pp. 109-126, (2019).
10. H. J. Han, J. H. Yang,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 Engag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1, pp. 169-190, (2017).
11. N. M. Kim, H. W.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eachers' Autonomy Support, Learner's Psychological Capital, Cognitive Learning Strategy and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Engag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11, pp. 759-781, (2016).
12. N. Y. Lee, J. Y. Han, "Effects of Self-Determinative Motiva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on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 pp. 455-467, (2020).
13. J. S. Cho, H. M. Do, "Relationships among Teaching Presence, Learning Engagement, and Learners' Satisfaction in K-MOOC",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5, pp. 551-572, (2020).
14. H. Weisinger, *Emotional intelligence at work*,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8).
15. J. I.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Psychological Well-being to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2, pp. 574-583, (2018).
16. H. W. Kim, M. S. Yoo,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4, No.2, pp. 41-54, (2020).
 17. H. S. Kang, H. J. Lee, B. H. Park, Y. G. Lee,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Empathy Ability and Calling Consciousness of Nursing Students on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3, No.2, pp. 243-252, (2019).
 18. S. G. Kim, E. S. Do, "A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ing efficac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8, pp. 231-239, (2019).
 19. O. S. Lee, G. M. Gu,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6, pp. 2749-2759, (2013).
 20. M. Y. Bang, *The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Emotional Intellingence 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atolic Kwandong University, (2020).
 21. J. P. Tangney, R. F. Baumeister, & A. L. Boone,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 *Journal of Personality*, Vol.72, pp. 271-324, (2004).
 22. S. M. Shin, Y. S. Song, J. S. Oh, J. M. Shin, "The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Self-Control and Facebook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 Vol.25, No.2, pp. 371-388, (2018).
 23. M. J. Ko, B. Y. Choi,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6, pp. 81-104, (2017).
 24. H. S. Lee, E. H. Seo,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regulation in collaborative context,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15, pp. 959-975, (2018).
 25. M. M. Handelsman, W. L. Briggs, N. Sullivan, & A. Towler, "A measure of college student course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98, No.3, pp. 184-192, (2005).
 26. J. W. You,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Factor, Psychological Mediators and Motivational Factor for Enhancing Learners' Engag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11).
 27.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 243-274, (2002).
 28. P. J. Hwang,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2007).
 29. M. M. Bong, S. I. Kim, J. Reeve, H. J. Lim, Y. G. Lee, J. Yi, J. H. Kim, H. J. Kim, A. R. Noh, U. K. No, S. H. Back, J. Y. Song, J. Y. Shin, H. S. Ahn, Y. K. Woo, S. J. Won, K. H. Lee, M. H. Lee, S. K. Lee, S. Y. Lee, J. S. Lee, Y. K. Chung, C. Cho, A. R. Hwang, *SMILES (Student Motivation in the Learning Environment Scales)*, file:///C:/Users/sec/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DIEWCER2/1372850103_1.pdf. The Brain and Motiv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accessed Mar., 11, 2019).

30. N. C. DiDonato, "Effective self-and co-regulation in collaborative learning groups: An analysis of how students regulate problem solving of authentic interdisciplinary tasks", *Instructional science*, Vol.41, No.1, pp. 25-47, (2013).
31. D. Y. An,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onsideration of Future Consequences to Student Engagement and Mediating Effects between Self-Regulation and Co-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9).
32. A. F. Hay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2013).
33. K. J. Preacher, D. D. Rucker, & A. F. Hayes,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42, No.1, pp. 185-227, (2007).
34. H. J. Kim, Y. M. Lee,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1, pp. 692-700, (2020).
35. M. K. Kang, "Effect of Self-Leadership, Academic resilience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5, pp. 447-465, (2020).
36. L. H. Quan, S. J. Kim, "Effects of Biofeedback Training on Stress, Stress Response and Academic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5, No.2, pp. 107-114, (2018).
37. M. S. Kang, Y. J. Park, S. Y. Choi, S. J. Lee, "(Problem-Based Learning) on Academic Resilience, Learning Flow, and Academic Motiv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 291-298, (2018).
38. M. N. Choi, H. R. Roh, "The effects of the satisfaction, self-regulation, co-regulation, and group cohesiveness on continuous learning intention in university's PBL",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32, No.2, pp. 163-183, (2020).
39. H. Shahnazi, N. Jalilipour, & A. Hasanzadeh, "A surve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general health status, self-efficacy, self-regulation, and self-esteem among students of state high schools in Isfahan, Iran", *Health System Research*, Vol.13, No.2, pp. 156-163, (2017).
40. Y. J. Lee, J. H. Rho,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on Empathy of Undergraduat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2, pp. 401-410, (2019).
41. T. Y. Tewolde, *Adult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as Correlates of Social Engagement, Academic Engagement, and Confidence of Persistence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2014).
42. B. Zimmerman, "Investigating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Historical backgrou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45, pp. 166-183, (2008).
43. K. C. Kim, A. K. Ya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University Freshm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31, No.2, pp. 574-585, (2019).
44. J. C. Sun, & R. Rueda, "Situational interest, computer self-efficacy and self-regulation: Their impact on student engagement in distance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43,

- No.2, pp. 191-204, (2012).
45. C. Fiorilli, E. Farina, I. Buonomo, S. Costa, L. Romano, R. Larcán, & K. V. Petrides,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Burnout: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and Academic Anxiety in High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17, No.9, pp. 3058, (2020).